"아하~ 컨테이너 박스가 예술공간이었네"

시민 눈길 붙잡는 옛 도청 앞 '쿤스트할레 광주'

"어, 저 검정 컨테이너 박스들은 뭐지?"

최근 옛 전남도청일대에 등장한 검정 컨테이너 박스들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두 달전부터 검은색 바탕위에 영문으로 '쿤스트할레 광주'라고 쓰여진 컨테이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현재 10여 개가 자리를 잡았다.

'쿤스트할레'(Kunsthalle)는 독일어로 예술, 미술(art)을 뜻하는 Kunst와 홀·강당(hall)을 뜻하는 Halle의 합성어로, 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쿤스트할레 서울'의 전경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 새로운 문화 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가 첫 선을 보였다. 이곳은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독특한 모양의 전시·공연장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4년까지 29개 박스 들어서 내달 12일 '오월의 꽃'으로 첫선

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추진단은 컨테이너 박스 내부를 공연장과 전시장, 세계 각국의 아트관련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아트 라이브러리 등으로 꾸며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명소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지역의 문화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는 오는 2014년까지 이 일대에 연면적 1천19㎡, 건축면적 52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9개가 들어서게 된다.

우선 추진단은 오는 5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오월의 꽃'(5월 12일~6월13일)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광주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모든 공사는 오는 6월말 마무리되지만 '오월의 꽃' 전시에 맞춰 프레오픈 할 예정이다.

쿤스트할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이미지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컨테이너는 어떤 건축물보다 이동이 자유롭고 가변적일 뿐 아니라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쿤스트할레는 '플래툰'이란 독일회사에서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됐다. 지난해 4월에 베를린에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두 번째 플래툰 쿤스트할레를 지었다.

'쿤스트할레 서울'은 톡톡 튀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젊은 작가들을 위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갖추고, 주말 밤에는 흥겹고 화려한 라운지 겸 클럽으로 변신해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았다. 건물이 아름다워 제32회 한국 건축가 협회상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플래툰'이 직접 설계·시공을 해 광주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쿤스트할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서브컬쳐'(주변 계층의 하위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끽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성악 초등 3·4학년

심사위원
강양은(호남신학대 교수)
강숙자(전남대 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유형민(광주대 교수)

1 고원정(월봉3)
4 양희진(진제4)
5 박준경(운리4)
8 정수화(운리3)
15 서정민(진만3)
17 주혜림(금당3)
19 문채연(진만3)
21 오동현(광주삼육3)
22 한성재(광양제철남3)
25 임이랑(유안4)
26 이지우(금당4)
27 류도경(살레시오4)
32 김민석(광주송원4)
33 김소연(신암4)
37 김태윤(풍암3)
38 성주희(광주송원4)
42 한동우(월봉3)
45 이지솔(살레시오3)
49 이정기(목포석현4)
51 최서형(금당4)
53 전나원(광주동운4)
56 김묘진(광주송원4)
59 문혜진(빛고을3)
60 주수영(고실4)
61 조성은(살레시오3)
63 한유진(광주송원4)
64 김 송(금당3)
66 정예원(유안4)
67 김민서(금당3)
68 진영윤(광주송원3)
70 신수미(광주송원4)
71 박민경(살레시오3)
75 마서영(광주삼육4)
76 주유진(광주송원4)
77 한승민(살레시오3)
78 박수연(살레시오3)
79 한여원(광주송원3)
80 이재은(불로4)
81 문선영(광주송원3)
85 배유라(금호3)
87 선요원(광주학운3)
91 노현아(수완3)
97 전인보(신암3)
98 김민준(화개3)
99 김유한(불로4)
103 전주원(불로4)
107 조수영(화개3)
109 박한빈(월계3)

※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4월 30일(금) 초등부 1·2학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시인 박후식 '산문'을 만나다

광주일보 신춘문예·한국문학 신인상 등단 세번째 시집이어 산문집 '도시의 저쪽' 펴내

"나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무슨 달리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끝없는 나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 (중략) 나는 언제까지 달리기만 해야 할까. 어쩌면 질주보다 아름다운 무너짐이 더 쾌적할지 모른다."('아름다운 질주' 중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1978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박후식(77) 시인이 산문집 '도시의 저쪽'(월간문학출판부 펴냄)을 펴냈다. 1998년 '바다 그리고 사랑'이후 세 권의 시집을 냈지만 산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후식의 시가 있는 산문집'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산문집은 '시와 산문의 만남', '내 놀던 옛동산' 등 5부로 나눠 자신이 쓴 시에 대한 소개와 '영원한 울림'으로 남은 명시들에 대한 해설과 감상을 담았다.

첫 글 '시와 산문의 만남 1·2'에서는 시인의 시가 쓰이게 된 배경과 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내 놀던 옛 동산'에서는 시인이 글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산문이라는 이름으로 써 왔던 글들을 한데 모았다.

제4부 '영원한 명시의 고향'에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정서와 맑은 시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의 해설과 감상을 담았으며, 교직에 있으면서 느낀 교수·학습 그리고 수업에 대한 감회와 소신을 적은 글과 버리기 아까운 글을 '자투리 글'로 엮었다.

박씨는 "글을 마치고 나니 마치 고향의 어귀에 와 있는 느낌이다"며 "도시의 저편, 바닷가 언덕처럼 시가 있는 산문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완도 출신인 박씨는 고흥여중·화순중 등의 교장을 역임했고 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05년에는 광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비엔날레지원센터 내년 3월 완공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고, 재단 사무공간으로 쓰이게 될 광주비엔날레 지원센터가 내년 3월 완공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옆 용봉제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391㎡ 규모로 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감도〉

국비와 시비 등 총 57억원이 투자되며, 설계 및 설계자문은 건축사무소 '사람'과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내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승효상씨가 각각 맡았다.

지원센터에는 비엔날레 재단 사무공간, 세미나실, 홍보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호수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산만한 주변을 정돈, 연결시키는 기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 광주의 대표적 예술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자치회의·전남대 산학협력단 亞문화예술특구 활성화 사업자로 선정

레지던스 지원팀도 확정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는 27일 2010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활성화 사업(이하 특화지구 사업) 주관처와 2010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화지구 사업은 지난해까지 광주문진위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올해 처음 공모를 진행한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올해는 사업 장소가 기존의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와 함께 금남지하 상가까지 확대됐다.

광주문진위는 지난 23일 특화지구 사업자로 광주문화자치회의(대표 김하림)와 전남대 산학협력단(대표 천득염)을 선정했다.

대인시장 사업을 맡게 될 광주문화자치회의에는 전고필씨 등 북구 문화의 집 기획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의 거리와 금남지하상가 사업을 따낸 전남대 산학협력단에는 지난해 대인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박성현씨와 코디네이터들이 합류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단체도 결정됐다. 27일 심사를 진행한 광주문진위는 17개 신청팀 가운데 ▲(사)대동문화의 '대동아트스튜디오'(6000 만원) ▲광주·전남 미술인 포럼(대표 이정용)의 '아트플랫폼 광주'(5500만원)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의 '성촌예술마을 만들기'(4000만원) ▲솔라 이클립스(대표 조영신)의 '미디어시티 광주 컨셉도시를 위한 미디어 아티스트 특성화 사업'(3000만원) 등 4곳을 선정했다.

/김미은기자 mekim@